

2016년 11월 9일, 구좌읍 세화리 조흥순씨 댁, 송정희 조사.  
조흥순(여, 1924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**[제보자]** 옛날 도체비렌 헌 거.

**[제보자]** 술 혼 잔 먹어네. 그 우리동네 삼촌이 술 혼 잔 먹어네이. 저 밖에 나오니깐, 아  
뭇 돌맹이 닳은 것이, 불이 요만이 헌 것이 뱅뱅 뱅뱅뱅 돌아댕기는 거라. 줍젠  
허민 또 이젠 멀리 가불곡, 심젠 허민 멀리 가불곡, 이거 뵈고 뵈고 헐, 이제 막  
그걸 따라 막 가는 거라. 가단 보나네. 이제 그 소 맥이는 물더레 풍 빠져분 거  
라. 게난 하르방도 곶이 빠져부나네. 물에 (웃음) 들어간이 허단에양. 나왔주게.

- 핵심어 : 도체빗불, 하르방, 소, 물